

2002년 낙농육우산업 결산

이혜영 / 본회 지도부 대리



농림부에서는 4월초 원유가 5% 인하방안을 제시하였고, 협회에서는 곧바로 회장단 회의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유가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생산량 감소를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젖소 도태를 결의하게 되었다. 두달 간의 젖소도태로 약 2만2천여 두가 도태되고, 우유성수기에 접어들어서도 소비는 늘지않아 우유수급 안정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상초유의 원유수급 불균형

02년도 한해는 그야말로 우유대란이었다. 우유생산량은 소비량을 크게 웃돌았고, 분유재고는 약 2만여 톤에 달하였으며 그와중에도 혼합분유 수입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유수급 불균형과 우유생산비 조서 결과를 이유로 낙농가들은 계속해서 원유가 인하압력을 거세게 받아왔다.

우유급식이 시작되고, 우유성수기가 시작되면 예년과 같이 우유수급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했지만, 우유수급 불균형의 현상은 사상초유의 분유재고 적체를 낳았다.

농림부에서는 4월초 원유가 5% 인하방안을 제시하였고, 협회에서는 곧바로 회장단 회의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유가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생산량 감소를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젖소도태를 결의하게 되었다. 두달간의 젖소도태로 약 2만2천여 두가 도태되고, 우유성수기에 접어들어서도 소비는 늘지않아 우유수급 안정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시작해 보기도 전인 6월말에 또다시 체세포수와 세군수를 강화하여 원유가 32.23원 인하안이 제시되었다. 협회에서는 원유가 인하압력에 대응하여 대정부·대국회 건의활

▲ 분유재고 동향 ▲

(단위 : 톤, %)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월	12,534	9,532	8,682	6,024	12,603	9,545
2월	13,996	12,009	10,206	8,367	12,572	12,623
3월	13,875	14,244	9,693	9,756	12,249	16,216
4월	12,617	15,490	9,074	10,711	10,076	17,237
5월	11,886	16,162	8,601	11,861	8,274	18,976
6월	11,220	16,197	7,283	11,794	6,666	19,700
7월	10,067	15,204	6,584	10,918	4,933	19,609
8월	9,667	14,352	5,446	11,341	3,822	18,621
9월	8,498	11,313	3,671	10,858	3,040	18,180
10월	7,368	10,040	2,710	10,167	3,621	18,227
11월	6,738	8,389	2,476	9,842	4,771	17,757 11월 20일 현재
12월	7,441	8,348	3,636	10,310	5,840	

※ 자료 : 한국유가공협회

▲ 혼합분유 수입실적 ▲

년도	2001년		2002년										합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입량(톤)	2,358	1,300	2,508	1,290	1,862	2,345	2,216	2,490	2,146	1,449	1,611	1,627	23,202
년도	2000년		2001년										합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입량(톤)	1,142	1,119	948	1,020	1,010	1,345	946	1,132	1,912	2,043	1,873	2,312	16,802
전년대비(%)	206.48	116.18	264.47	126.47	184.36	174.35	234.25	219.97	112.24	70.92	86.01	70.37	138.09

※ 자료 : 관세청 (HS코드 : 0404-90-0000, 1901-90-2000)

동 등 대응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농림부에서는 새로운 원유 가격 산정체계를 3개월 정도 평가 후, 진흥회 이사회를 거쳐 3개월간의 예고 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최소한 금년말까지는 정상유대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8월에 들어서자 낙농

진흥회에서는 정상유대 지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유수급 조절 6개 방안으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강화, 원유의 기준가격조정, 생산쿼터제, 용도별차등가격제,



계절별가격차등제,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제시하며, 낙농가에 게 선택을 강요하게 되었다.

물론, 협회 이사회나 간담회에서는 낙농가만 피해를 보는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진흥회 이사회에서는 낙농가 대표가 반대, 불참한 가운데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표결처리 강행시켰다. 이에 서울우유는 진흥회를 탈퇴하였고, 협회에서는 10월 21일 임시총회를 거쳐 10월 31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철폐를 위한 전국낙농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약 6,000여명의 낙농가들이 과천정부청사 앞에 모였고, 우유수급 불균형의 책임을 낙농가에만 전가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철폐와 제도적인 소비확대 방안 마련, 혼합분유 수입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이날 과천에 울려 퍼진 낙농가의 목소리는 절규였고, 살기위한 몸부림이었다. 농림부는 WTO 규정상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으로 해결키로 하고 해산하였으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방문활동을 전개중에 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 감수되어야 한다면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유소비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내에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확대, 우유팩 용량 확대, 군 우유급식증량 등 제도적인 소비확대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협회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한 연후에 생산조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유대란속에서도 혼합분유 수입은 전년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동안 협회에서 혼합분유 수입업체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활동을 전개하여 몇몇 수입업체에서 혼합분유 수입중단과 국산분유 사용계획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낮은 관세의 혼합분유로 수입해 들어와 분유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유함유량 비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조정해야만 근본적으로 혼합분유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혼합분유 관세율을 분유함유량 비율로 적용하여 조정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다.

내년에 우유수급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유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채 생산량부터 줄이자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1월 1일부터 강행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로 과연 어느정도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도 미지수이다.

낙농자조금사업의 정착과 법제화

낙농가 스스로 우리 낙농산업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낙농자조금사업이 올해로 4년째가 됐다. 다른 업계 자조금사업에 비해 시작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한 자조금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낙농자조금의 성공사례를 배우려는 농축산단체들의 특별강연이나 강의요청이 많은 한 해였다.

올해 사업도 주로 TV, 라디오 등 광고효과가 높은 방송매체 위주의 홍보사업을 실시하였고, 최초로 TV 공익캠페인 광고기법을 도입하여 광고시간을 길게 늘리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우유를 소재로 한 특집방송을 방송국의 협조로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우유소비홍보 연구용역, 우유홍보 영상물 제작 배포, 젓소 캐릭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우유홍보 등 우유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자조금 성과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보고될 것이다.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이 5월 13일 공포되고, 시행령·시행규칙이 11월 14일 공포되면서 의무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자조금에 동참하는 낙농가들의 불만이 소수의 불참하는 낙농가들에게 있었으나 이 법에 의한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으로 낙농가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여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지키는 끈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해를 마감하며

우유수급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시 일대에서 발생되었다. 젓소가 아닌 돼지에서 처음 발생되었으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았다. 한쪽에서는 생산감산을 위해

젓소를 도태하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구제역으로 살처분이 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다른지역으로 전염되지 않고, 젓소목장에서는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 다시한번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협회에서는 성금모금을 통하여 북한에는 분유를, 불우 이웃에는 우유를 보내어 조급이라도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농협중앙회, 축산신문과 공동으로 4개월간 「사랑의 우유보내기운동」을 전개하였고, 많은 낙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약 3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모아진 성금은 북한에는 100여 톤의 분유로, 불우이웃에는 우유로 보내지게 된다.

연초에는 SBS TV 다큐멘터리 “잘먹고 잘사는 법”방영으로 소위 채식열풍이 불기도 해 우유소비 둔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협회에서는 우유소비의 악영향을 우려하여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정투쟁과 항의방문, 항의문 발송 등 대응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동안 타 농민·시민·소비자 단체와 연대하여 저지활동을 전개해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농림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하였고, 국회의원들로부터



더 국회비준거부 서명을 받기도 했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대회로 협회장이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기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글자 그대로 무관세자유무역이 원칙이므로 국내 농업을 상대국에 내어주자는 협상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얻는 공산품 생산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FTA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한·뉴 FTA, 한·미 FTA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어 또 하나의 과제가 우리나라농산업을 억누르고 있다.

그밖에 협회에서는 우유소비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자급조사료를 증산시키는 정책유도, 구제역 방역 및 농가보상 대책, 부루세라·BSE 대책마련, 생우수입에 대한 대책마련 요청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낙농가의 협회로의 단합과 낙농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청년분과위원회에서는 낙농현장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정부·대국회 건의·방문활동 등 낙농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였고, 여성분과위원회에서는 우유 홍보 캠페인 실시, 학교 1일 명예교사 등 우유소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육우분과위원회에서도 안성시, 강화군 지회 결성과 토론회 개최 등으로 육우농가의 단합은 물론 육우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단합하고 힘을 모아준 낙농육우농가와 지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협회는 낙농육우농가를 위해 결성된 낙농육우인의 대변단체인 만큼 농가 중심의 활동으로 더 큰 성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필자연락처 : 02-588-7055〉

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우리협회는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대변과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강력한 활동을 위해서는 전 낙농육우농가들의 회비납부를 통한 재원조달도 아주 중요합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이는 회원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도 전국의 낙농육우농가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협회비 3만원을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社 團 韓 國 酪 農 肉 牛 協 會
法 人